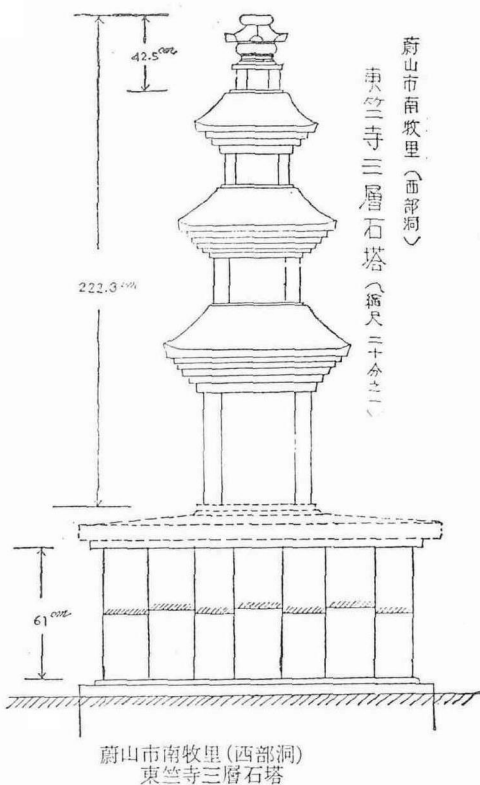


蔚山市南牧里(西部洞)

東竺寺三層石塔(竪尺二十分之二)



蔚山市南牧里(西部洞) 東竺寺三層石塔

寺를 創建했다하니 皇龍寺와 由緒깊은 寺刹이 있으나 지금은 瓦片과 塔址가 남아 있다.

現 東竺寺(丙子胡亂前에는 東竺寺所屬의 庵子)의 本堂앞 築臺側近에 一基의 三層石塔이 있다. 基壇甲石은 없�지고 基壇石이 方形으로 둘러싼 內部로부터 塔層이 積聚되어 있다. 幅이 넓은 撐柱가 一面에 二柱씩 있어 三區로 按分되었고 塔身과 屋蓋는 幅에 比하여 高가 훨씬 높고 屋蓋裏의 斗拱은 一、二層이 五段으로 되고 三層은 三段으로 되었다. 塔層頂上에 相輪은 露盤과 覆鉢이 一石造로 되었고 寶蓋는 六角으로 仰角이 췌켜들고 있다. 圓形의 寶輪一個가 寶蓋위에 없�져 있음은 寺僧이 잘 못 없�는 것이다.

本塔은 高麗中期以後의 塔으로 짐작되고 全高約 3m에 不遇한 小形石塔으로 各層의 數値는 幅에 比하여 高가 높고 簷下幅이 斗拱幅과 거의 같아 一見 六段으로 보이고 八個組로 된 基壇面石의 隅柱와 撐柱幅이 넓어 區間幅과 若干의 差가 있을 뿐이다. 또 三層屋裏斗拱이 三段으로 줄어든 것도 異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가 客年 十二月 十二日 本塔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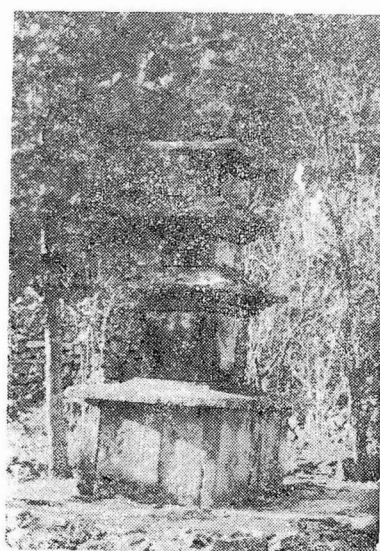
調査할 때 本來의 東竺寺址와 이 山에 磨崖石佛이 二軀있으나 後日 調査할 機會를 가지고자 한다.

### 堤川郡 月岳里 三層石塔

孟 仁 在

今年 二月 十七日 忠北 堤川郡 德山面 月岳里에서 神勒寺三層石塔一基를 調査하였다. 神勒寺는 德山面所在地로부터 약 6km 西方山間으로 進入한 月岳山東麓의 平坦한 溪邊臺地에 있고 塔은 寺門內 法堂南方路邊에 位置하고 있다. 南向한 法堂은 李朝末期의 多包뻬집이고 前庭一角에 僧房을 兼한 民家一棟이 있을 뿐인 寒寺이며 塔以外의 石造物은 볼 수 없었다.

塔은 二層基壇임이 確實하나 西南隅角의 下基壇甲石一部가 僅僅 地面에 露出되었을 뿐 그 以下 그리고 東北隅角의 上基壇面石一部는 埋沒되어 있다. 地盤의 沈下와 流砂로 덮인 埋沒의 깊이는 30cm以上일 것이며 傾斜度는 東北隅角으로 약 6度이다. 露出된 下基壇甲石에는 二段의 上基壇面石과 四枚의 隅柱와 撐柱가 刻出되어 있고 上基壇面石은 四枚이며 隅柱와 撐柱가 刻出되어 있다. 上基壇甲石은 南北二枚이며 斗拱과 角形의 屋身石과 覆鉢이 各一段씩 刻出되어 있다.



初層身石을 비롯한 三層까지의 身石과 蓋石은 各一石이며 身石에는 四隅柱를, 蓋石에는 各四段의

層級받침과一段씩의身石괴임을刻出하였다. 基壇面石이나塔身石에는 그밖의裝飾이 없고轉角의反轉度는甚하지 않으나물매나침하에약간의弛緩感이 있다. 相輪은比較的狀態가 좋으며露盤,覆鉢,仰花,寶輪三個,寶蓋와鐵製擦柱가 남아 있고寶輪의 받침돌一個와水漂,寶珠는 缺失되어 있다.

基壇部 各石은 部分的으로 破損되고 下基壇이 埋沒되어 있어 若干의 違和感을 느끼나 各層의 垂直 水平 遞減率은 新羅式 一般形 三層石塔의 테두리 안에 들 것이다. 地上에서 三층 蓋石까지의 現在高는 三三四cm, 擦柱까지는 四六七cm 復原推定高는 約5m 下基壇의 構造는 아직 불 수 없으나 上記한 諸部分의 狀態를 勘察하건대 統一新羅末期의 建造로 推定할 수 있겠다.

現狀實測表 (單位 cm)

相輪	各部			身石	蓋	石
	層位	甲石	괴임			
높이 一三三(擦柱包含·各部省略)	上基壇	邊 一六四 두께 二二 침하 八·五	下邊 一五三 上 一四六	邊 三〇八	邊 高 偶柱 邊 두께 반침	층압 침하 괴임
	初層			六九 五九 一一	水平三 垂直三	六·五 邊六三
	二層			五八 二六 一一	一〇三 三五 右	同 六·五 邊六三
三層			五四 二五	九 九九 三五 右	同	六 邊三五

第七卷 第三號 通卷六十八號

春宮里 兩塔內 發見遺物과 補修概要

金 禧 庚

서울에서 過히 멀지 않은 廣州郡 春宮里땅에 아름다운 雙塔이 서 있어 일찍기 日人學者들에 依하여서도 많은 注目이 되어 왔던바 一九六五, 一, 一三부터 六六, 一, 七에 古建社에 依하여 補修工事가 있었는데 筆者는 이 兩塔의 基壇部에 對하여 疑心點을 가지고 있어서 一九六二年과 六三年의 두차례에 걸쳐 調査한 因緣도 있고하여 今般機會에 工事現場에 參與하게 되었다. 이 塔들은 補修前에 基壇部塔材에 缺失이 많아 遺物의 發見에 對하여는 많은 期待를 걸 수 없었던바 多幸히 塔周圍地下에서 塔材數枚가 發見되었다①.

一、三層石塔

傾斜가 甚하였고 上基面石 缺失部分으로부터 內部가 들여다 보였다. 解體時 第一塔身石 中央에 圓形二段舍利孔(外圓徑三一·五cm 深一一·〇cm 內圓孔徑一一·〇cm 深五·〇cm)이 있었고 그 속 土砂中에서 銀器破片과 橢圓形의 金銅製小盒(幅三·〇cm 高〇·九cm 長四·〇cm) 및 舍利數粒이 發見되었다. 基壇部解體時 地面下에 다시 下層基壇이 있어 二層基壇임을 알게 되었고 面石各面에 三區씩 眼象이 鮮明하게 刻出되어 있어서 좋은 資料를 提供하여 주었다.

下層基壇中央部 龕속에서 蠟石製小塔 二九基와 銅製如來立像(足部, 手部缺 現高七cm) 一軀, 銅製小人物坐像(手部缺 現高二·七cm) 一軀, 蠟石製佛像(頭部, 手部缺 現高九·五cm) 一軀, 青銅三花形蓋(徑七·五cm) 一이 發見되었는바 特히 小塔은 塔外地臺石 四圍에 三一四基씩 흠어져 있던 것도 있었으니 혹시 內部攪亂時의 所致가 아니었던가도 推測되었다. 이들 小塔은 各各 其樣式이 相異하였으니 이들을 特徵에 따라 分類하면

- ① 層數別 八層塔……一基, 七層塔……五基, 六層塔……三基, 五層塔……